

“税金만은 例外다”

中産層이 安定을 누리면 세상이 조
용하다. 心理的 中産層이 實質的
中産層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더
욱 좀 밀어주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
는 마음 간절하다. ———

프랑스의 笑話에 이런 얘기가 있다. 한번은 루이 15세에게 臣下가 와서 보고했다. 『宮中の 衛兵 하나가 장난삼아 銀貨 한냥을 삼켰는데 목에 걸렸는지 갑자기 안색이 변해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즉시 저명한 醫師를 불러 오라고 명했다. 이 때 옆에 있던 노아이유元帥가 말했다. 『폐하, 醫師가 아니라 회계감사관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왜 회계감사관을 부르란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관은 그 銀貨에 대해 우선 10분의 1의 税金을 붙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그 나머지의 10분의 1의 세금을 댈 것입니다. 이렇게 몇번만 税金을 떼면, 결국 그 銀貨는 작아져서 목구멍으로 넘어가 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税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笑話이다.

얼마전 全經聯은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내려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같은 날 勞總은 근로소득의 人的공제를 높여 5인 가족 기준으로 현재의 月15만 5천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全經聯은 대기업의 사장님들의 단체이다. 全經聯의 건의는 방위세 주민세를 감안하면 종합소득세의 실질 최고세율이 79.05%에 달하고 있으니 이를 62%線으로 낮춰 달라는 것이다. 최고세율은 年所得 6천만 원 이상 월소득으로 고치면 5백만원 이상이 적용된다. 한달 봉급이 5백만원인 사장님도 税金 4백만 원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1백만원 뿐이니 社長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세금이 무겁기는 무거운 듯하다.

勞總의 건의는 흔히 말하는 甲勤稅의 면세점을 올리라는 것이다. 월급이 22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税金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月 22만원 이하의 봉급으로는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여 税金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税金은 몇백만원의 봉급을 받는 사장님께도 벅차고, 또 20여만원 받는 근로자에게도 힘겹다. 장사해서 돈을 버는 사람에게도 세금은 벅차고, 企業체에게도 세금은 벅차다.

